



L'HOMME DEBOUT (Standing Man)

CHUNG HYUN

L'HOMME DEBOUT

JARDIN DU PALAIS-ROYAL
IBU Gallerys

2016.03.30-09.18



CENTRE DES
MONUMENTS NATIONAUX

IBU Gallery, Galerie RX, HAKGOJAE Gallery Séoul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CORÉE 한국
프랑스 FRANCE
2015 2016

JARDIN DU PALAIS-ROYAL 6 rue de Montpensier, 75001 Paris
IBU Gallery 166 Galerie de Valois Jardins du Palais Royal 75001 Paris
cyril@ibugallery.fr

SPECIAL FEATURE

김세중조각상 30년 한국 조각의 궤적

김세중조각상이 출범 30년을 맞았다. 이 상은 한국 현대조각 제1세대 작가 김세중(1928~1986)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 김세중은 서울대 미대 1회 졸업생으로 서울대 교수,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을 역임했다. 김세중기념사업회(이사장 김남조, 시인,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지난 6월 24일 코인의 옛 자택에 신축한 복합문화공간 '예술의 기쁨'에서 제30회 수상식을 개최하고, 역대수상작가 기념전을 열고 있다. 김세중조각상은 지난 30년 동안 본상 30명, 청년상 33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수상자의 면면은 한국 현대조각의 얼굴과 겹쳐 있다. 수상작가 63명의 작품을 화보로 꾸며 시대별 양식별 흐름을 조망한다. 더불어 김세중조각상의 의미와 한국 현대조각의 발자취를 되짚는다.

표현, 형상

1980년대의 한국미술은 모더니즘과 민중미술이 첨예한 이원적 대립으로 치달았던 시기였다. 그 대립은 창작뿐만 아니라 비평이나 제도에까지 퍼져 있었다. 돌이켜 보면, 그 폭풍의 시대는 치열한 대립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미술이 획일주의에서 벗어나 다원화 경향을 띠기 시작했던 역사적 전환점이기도 했다. 세계미술은 포스트모던 미술로 방향을 선회해, '형식'에서 '내용'으로의 양식적 전환이 큰 물결을 이루었다. 특히 국제적으로 표현주의, 형상주의 미술의 강세가 뚜렷했다. 또한 서구 모더니즘이라는 중심, 그 수면 밑에 가려져 있던 모국주의(vernacularism), 페미니즘 등이 새로운 담론으로 부상했다.

1980년대의 한국 조각에는 이러한 나라 안팎의 상황이 반영되었다. 무엇보다 한국 조각계에서 구상 조각의 르네상스, 요컨대 리얼리즘 조각이 개화했던 것도 바로 이 시기다. 당시의 조각은 진정한 의미의 '구상'이었다. 그것은 국전에서 자주 보이던 신변잡기의 감상주의에 빠져 있던 모자상 계열의 자연주의적 재현 조각과는 완전히 다른 맥락이었다. 특히 인체 조각이 대단히 활기를 띠었다. 그것은 '소재'로서의 인체라기보다 '정신'으로서의 인체였다. 그 정신은 정치 사회적 현실, 사회적 소통, 인간 존재의 본질 등을 둘러싼 문제에 바짝 닿아 있었다. 일찍부터 구상 조각을 견지했던 임송자 김효숙 김정수에 이어 김영원 홍순모 류인 정현 배형경 박희선 임영선 구분주 등의 인체상은 시대정신과 인간 보편의 문제를 담은 조각으로 각광을 받았다. 특히 이 시기는 지역적 특수성에 방점을 찍고, 한국성의 탐색을 조각의 조형적 지표로 부각시켰다.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시간의 뗏국이 묻어나는 물건들, 향토적 토속적 소재를 조각 언어로 형상화하는 작업으로 확대되었다. 1980년대만큼 비평적으로나 조형적 실천으로나 '전통의 현대적 계승'이라는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진 적이 없다. 한편 내용주의의 확산과 함께 한 덩어리의 조각 공간 안에서 서술적인 형상을 풀어 내는, 이른바 '풍경 조각'이 1980년대부터 생겨났다. 양화선 이종빈 최승호 이용덕 등이 이 맥락에 해당되는 조각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990년대 이후의 구상 조각은 이미 전통적인 형식과 내용까지를 넘어서고 있다. 사실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 형상은 디지털 환경이나 대중매체에서의 인용(appropriation), 탈장르적이며 영역횡단적인 형상과 오브제 등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최우람 천성명 노준 등이 이 새로운 세대의 조각적 감성(개인의 '작은 이야기'를 중시하는, 이를테면 '마이크로 유토피아'적인 세계관)을 잘 드러낸다.



김효숙 <우리를 구원하소서
90-1> 청동 1990

오른쪽 페이지
김영원 <그림자의 그림자>
브론즈 220×190×800m
2009 서울 노을조각공원







위 · 이용덕 <Synchronicity>
420×235×30cm 2009
아래 · 임송자 <아이와 엄마>
테라코타 55.5×102.5×10cm
2005

왼쪽 페이지

위 왼쪽 · 윤석남 <붉은 밥>
나무에 채색 154×118×7cm
2003

오른쪽 · 정관모 <미친 세월>
나무에 먹, 아크릴릭 2001-02
아래 · 정현 <무제> 청목
300×75×25cm 40점
2001-06 <오늘의 작가전>
전시 전경,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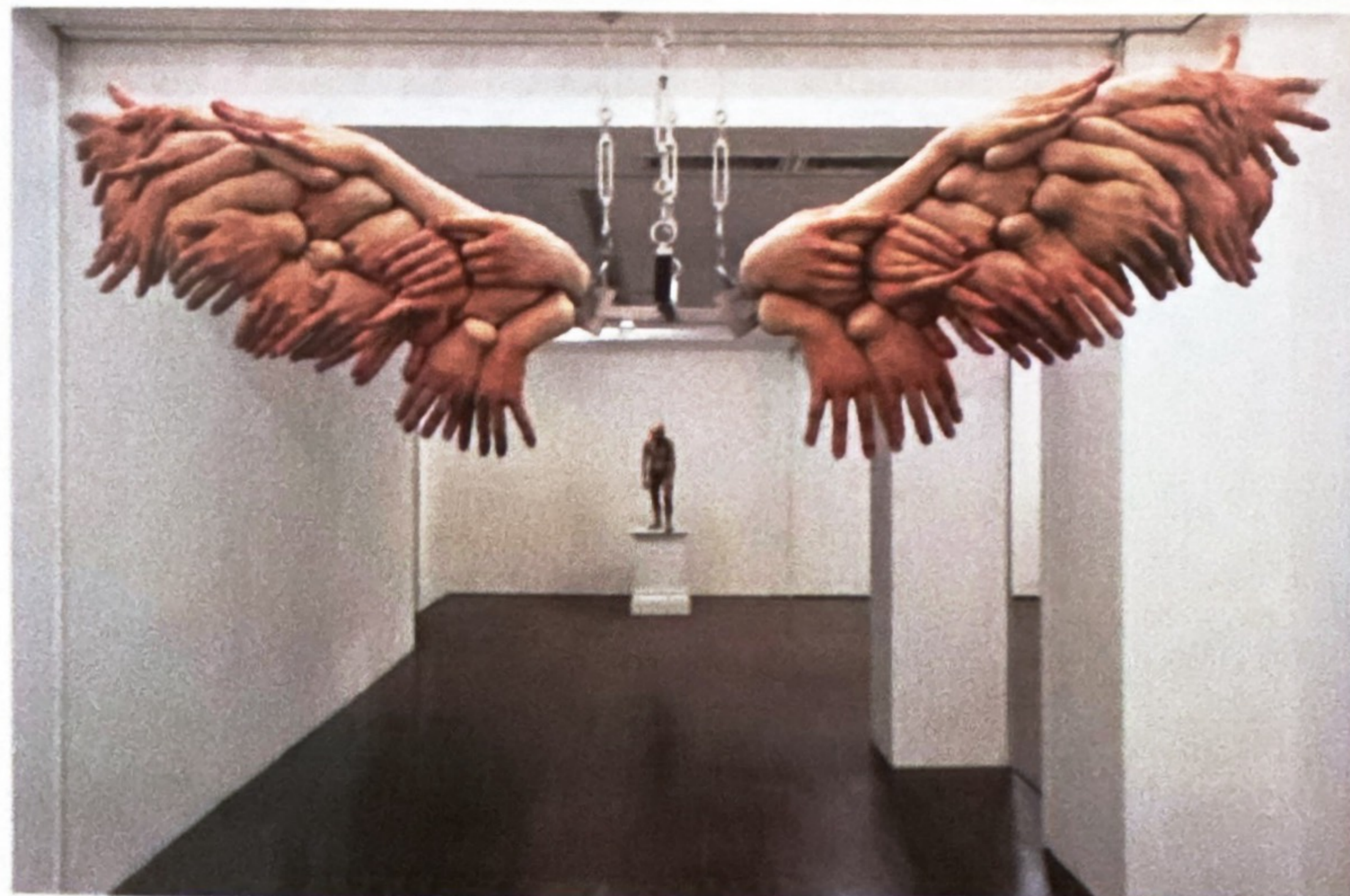


김광우 · 〈P22-우체부〉 나무,
스테인리스 스틸, 가방, 카메라
200×66×95cm
아래 · 최승호 〈침묵의 마을〉
브론즈 130×95×100cm
1991

오른쪽 페이지

위 · 최우람 〈Operatus
Lunula Umbra〉 철, 레진,
BLDC 모터 외 혼합재료
500×490×360cm 2008
아래 왼쪽 · 천성명 〈부조리한
덩어리 4〉 합성수지에 아크릴릭
가변크기 2012
오른쪽 · 최수양 〈날개〉
172×48×56cm 합성수지에
유채 2009







왼쪽 · 권오상 《무제의 지드래곤》 컬러 유리블 외 혼합재료 176×105×300cm 2015
오른쪽 · 박재영 《Downier! New Product》 혼합재료 2011

오른쪽 페이지
위 · 노준 《Clo can reflect your mind》 스테인리스 스틸 70×65×90cm 2008
아래 왼쪽 · 박종빈 《Dust Room》 나무, 아크릴판, 라텍스 장갑, 가루 130×96×60cm 2010-11
오른쪽 · 김석 《Mimesis Scene-Homo Sapiens Sapiens》 나무, 철, 물감, 석고 230×140×60cm 2016



